

챔필 만원 관중, KIA '볼넷 잔치' 만 봤다

NC와 주말 3차전, 볼넷 11개 헌납 4-15로 대패...연승 마감
8호포 김도영 12경기 연속 안타·소크라테스 홈런 '위안거리'



'호랑이 군단'의 3연승이 볼넷에 막혔다. KIA 타이거즈가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3차전에서 4-15 패를 기록했다.

시즌 5번째 만원 관중 앞에서 3연승에 도전했던 KIA는 11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승리를 내줬다. 선발로 나선 김건국이 1회부터 2개의 볼넷을 허용했다. 1사에서 권희동을 볼넷으로 내보낸 김건국은 손아섭을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데이비슨에게 두 번째 볼넷을 기록했다. 김건국은 박건우까지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만루 위기에 몰렸다. 김성욱을 상대로 3루 땅볼을 유도하면서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1회부터 27개의 공을 던진 김건국은 3회를 마무리 못했다. 1회말 나온 김도영의 솔로포로 1-0으로 앞선 3회초, 김건국이 선두타자 손아섭에게 우측 2루타를 내줬다. 데이비슨의 유격수 땅볼 때 선행 주자를 잡으면서 1사 1루, 김건국이 박건우와 김성욱에게 연속안타를 맞으면서 만루에 몰렸다. 이어진 승부가 아쉬웠다. 서호철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면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고, 투수가 박준표로 교체됐다. 두 번째 투수로 나온 박준표도 볼넷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밀어내기로 실점을 했다. 이어 김주원에게 우측 2루타로 두 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오면서 점수가 1-4까지 벌어졌다. 4회초 시작도 볼넷이었다.

3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책임졌던 이준영이 선두타자 권희동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우전안타를 허용하면서 장현식으로 교체됐다. 장현식이 데이비슨을 3루수 파울플라이로 처리했지만 박건우에게 좌중간 2루타를 맞으면서 1-5가 됐다. 장현식이 김성욱과 서호철의 방망이를 연달아 헛돌게 하면서 4회를 마무리한 뒤 이어진 공격에서 소크라테스의 솔로포가 나왔지만, 5회초 KIA 볼펜이 다시 흔들렸다. 장현식이 김형준과 김주원에겐 연달아 홈런을 맞으면서 2-7이 됐다. 장현식이 물러나고 박도규가 출격했지만 이번에는 연속 볼넷이 나왔다. 손아섭의 1루 땅볼로 1사 2-3루. 박도규가 데이비슨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으면서 점수는 2-9까지 벌어졌다. KIA는 5회 상대 실책을 더해 2점을 추격했지만 4-9로 뒤진 7회초 데이비슨에게 3점포를 맞으면서 백기를 들었다. 데이비슨은 이날 멀티히트로 5타점을 독식했다. 11개의 볼넷으로 흔들린 KIA는 장단 16안타를 내주면서 올 시즌 최다 실점을 기록, 3연승에 실패했다. 이와 함께 부상으로 빠진 이의리를 대신해 '대체 선발'로 두 경기를 소화한 KIA는 SSG와 NC 두 강팀들과의 한 주를 3승 3패로 마무리했다. 한편 김도영은 이날 홈런으로 12경기 연속 안타에 성공했다. 김도영은 1회말 1사에서 NC 선발 김시훈의 4구째 144km 작구를 받아 중앙 담장을 넘기면서 솔로포를 기록했다. 시즌 8호포로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했다. 김도영은 지난 시즌 7개의 홈런을 장식했다. /김여울 기자 wool@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시즌 3차전에서 KIA 김도영이 1회말 솔로홈런을 터트린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이범호 감독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

"NC전 '쓰리피트' 논란 아쉽지만 '내부'에 집중"

"아쉽지만 우리는 우리 것을 한다." KIA 타이거즈의 1위를 이끌고 있는 이범호(사진) 감독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KIA는 지난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와의 시즌 2차전에서 9-2 승리를 거뒀다. 연승을 기록한 이날 시작은 좋지 못했다. 선발 제임스 네일이 경기 시작과 함께 박민우에게 2루타를 맞은 뒤 도루까지 내줬다. 권희동을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이어진 손아섭과의 승부에서 실점을 허용했다. 손아섭의 포수 앞 땅볼 때 김태군이 공을 잡아 홈으로 쇄도하던 3루수자 박민우 태그에 나섰다. 김태군이 몸을 날렸지만 박민우가 멀리 라인을 벗어나 홈에 들어오면서 세이프가 됐다. 이범호 감독이 그라운드로 나와 어필을 했지만, 심판진의 합의 끝에 나온 결론은 '세이프'였다.

이범호 감독은 21일 경기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포수가) 다이빙했을 때도 안 닿으면 쓰리피트 위반이라고 생각했다"며 "(심판진이) 4심 합의한 결과 또 안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말씀하셨다. 경기 초반이 지나갔는데 어쩔었던 부분에 대한 결과는 안 바뀌었지만 다음 타석에서 병살타가 나오면서 잘 끝난 것 같다. 4심 합의의 결과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크게 개의치 않고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1회부터 아쉬운 실점 장면이 나왔지만 KIA는 침착하게 승부를 이어갔다. 네일이 이후 7회까지 추가 실점 없이 마운드를 굳게 지켜줬고, 5회에는 이우성이 상대 선발 카일 하트를 상대로 3점포를 날리면서 분위기를 KIA로 끌고 갔다. 아쉬운 외부 변수가 나왔지만 경기를 끝낸 뒤집은 이범호 감독은 앞으로도 '내부'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KIA는 NC와의 홈경기를 끝으로 9개 구단을 모두 상대했다. 이범호 감독은 "선발투수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우리 타자들이 초반에 얼마나 선발을 상대로 점수를 뽑아주느냐에 따라서 중간 투수들 몇 회부터 쓸 수 있을지에 따라서 확실히 차이가 있다. 다른 팀의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1-3회, 3-6회까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확률 있는 야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작년에는 초반보다 후반에 점수가 많이 났는데 올해는 선수들이 초반부터 집중해 줘서 앞서나가고 있는 경기에 볼펜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좋은 밸런스로 왔다. 투수들을 상황에 맞춰 배치하고, 타자들이 초반에 점수를 내주면서 좋은 성적내고 있는 것 같다. 그 흐름을 비슷하게 하면서 중간 투수들이 이를 던지고, 하루 휴식하게 하는 로테이션을 잘 돌리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것 같다"고 내부의 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정후, 안방서 시즌 2호 홈런

샌프란시스코 7-3 역전승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2호이자 안방인 오라클 파크에서 1호 홈런을 쏘아 올리고 썩기 타점을 수확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정후는 2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치른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0-1로 뒤진 1회말 첫 타석에서 선두 타자로 동점 홈런을 터뜨렸다. 애리조나 애이슨인 우완 선발 투수 잭 갠런의 2구째 높은 속구(시속 149km)를 잡아당겨 약 111m를 날아가는 1점짜리 포물선을 그렸다. 지난달 31일 샌디에이고 팻포크에서 MLB 데뷔 홈런을 친 이래 21일 만에 터진 이정후의 두 번째 홈런이다. 전날 휴식 차원에서 시즌 두 번째로 결장한 이정후는 시원한 홈런으로 벤치의 기대에 부응했다. 이정후는 또 4월 8일 샌디에이고와 경기 이래 11경기 연속 안타를 쳐 이 부문 역대 한국인 백리거 데뷔 시즌 최장 신기록을 수립했다. /연합뉴스

이정후는 전날까지 2015년 강정호(당시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2016년 김현수(당시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더불어 MLB 새내기 10경기 연속 안타를 날려 최장 타이 기록을 나눠 가졌다가 이날 새 주인이 됐다. 이후에는 2루수 땅볼(2-6회), 중견수 직선타(4회)로 숨을 고르던 이정후는 5-3으로 앞선 8회 5번째 타석에서 또 평을 냈다. 1사 2루에서 애리조나 구원 투수 미겔 카스트로의 변화구를 5개 연속 파울로 견어내더니 볼 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9구째 바깥쪽에 걸친 체인 지업을 결대로 밀어 3루수 옆을 관통하는 2루타로 2루 주자를 홈에 보냈다.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볼을 좀처럼 놓치지 않는 이정후의 정확한 눈과 정교한 스윙이 만들어 낸 안타였다. 역시 21일 만에 한 경기에서 타점 2개 이상을 수확한 이정후는 시즌 타점을 7개로 늘렸다. 이정후는 후속 마iler 콘포토의 우전 적시타 때 홈으로 들어왔다. 샌프란시스코는 7-3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챔스필드 100만 관중 '어제인 2017'

KIA 1위 질주에 연일 구름 관중... 12경기 누적 19만 376명 '최다'

챔피언스필드 두 번째 '100만 관중'이 이뤄질까?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시즌 3차전이 열린 21일 챔피언스필드에 만원관중이 입장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 챔피언스필드 2만500석이 모두 팔려나가면서 경기 시작 15분을 남겨두고 매진이 기록됐다. 시즌 5번째 매진으로 올 시즌 누적 관중은 19만 376명이 됐다. KIA는 지난 19일 NC와의 홈경기에서 1만 6889명의 관중을 불러들이면서 2014년 챔피언스필드 개장 이후 기록된 개막 10경기 최다관중 기록을 새로 썼다. 이날 KIA의 누적 관중은 15만 2414명, 앞선 개막 10경기 최다 관중은 2017년 작성된 12만4792명이었다. 곳은 날씨가 이어졌던 20일에도 1만7462명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으면서 개막 11경기 최다관중 기록(2017년 13만6867명→2024년 16만

9876명)이 만들어졌다. 12번째 경기가 열린 21일에는 아예 매진이 이뤄졌고, 개막 12경기 최다관중 기록도 15만1955명(2017년)에서 19만 376명으로 새로 작성됐다. 시즌 초반 투타의 밸런스를 앞세워 1위 질주를 하면서 흥행 물의를 하고 있는 KIA는 '어제인 2017'을 노리고 있다. KIA는 2017년 다이어마이트 타선으로 'V11'을 달성했고, 신바람 질주에 관중석도 뜨거웠다. 이해 챔피언스필드에는 102만4830명이 입장하면서 인구 145만 도시의 '100만 관중'이라는 놀라운 기록이 만들어졌다. 현재 페이스를 감안하면 두 번째 100만 관중을 노려볼 만하다. 올 시즌 평균관중은 1만5865명으로 2017년 평균 관중 1만4234명보다 1622명이 많다. 평균관중으로 단순 계산하면 100만 관중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2연전이 폐지되면서 격년제로 홈 73경기-원정 71경기가 편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시즌 KIA는 홈에서 73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평균관중으로 계산하면 올 시즌 KIA의 누적 관중은 114만 8145명이 된다. 챔피언스필드 역대 최다 매진 기록 경신도 기대된다. 기존 최다 매진 기록은 2017년 작성된 10회. 올 시즌 벌써 5차례 매진이 이뤄졌다. KIA는 3월 23일 카운 허어로즈와의 시즌 개막전을 만원 관중 앞에서 치르면서 지난 2019년 7월 13일 이후 첫 매진과 함께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이어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한 4월 6일과 7일에는 이를 연속 매진이 이뤄졌다. 총선날이었던 10일 LG전에도 2만500명이 입장하면서 관중석이 가득했다. /김여울 기자 wool@